

第46次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 參加報告

會 長 宋 孝 淳

1. 國際圖書館協會聯盟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略稱 IFLA)은 1928년에 創設된 國際機關으로서 現在까지 104個國이 加盟하고 있으며, 그 中에는 北韓을 비롯한 소련 中共 등 共產國도 20餘個國이 會員國으로 加盟되어 있다.

IFLA는 各國 圖書館 相互間의 紐帶를 긴밀히 하여 書誌情報의 交流를 통한 人類文化의 向上과 各國 間의 理解를 도모하고, 아울러 새로운 도서관학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學術을 研究·交換함으로써 圖書館界의 發展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그 設立目的이다.

2. 韓國과의 關係

우리 나라는 1955年 韓國圖書館協會의 創立과 함께 正會員(國家會員)으로 加盟하였다.

그 후 IFLA와 지속적인 유대關係를 유지하였고, 1969年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亞細亞太平洋地域圖書館國際會議를 始初로 우리 나라는 국제교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76年度에는 우리 圖書館界의 主管下에 서울에서 IFLA大會를 개최하여 29個國에서 300餘名이 參席함으로써 IFLA와는 더욱 긴밀한 關係를 맺게 되었으며, 아울러 IFLA를 통한 韓國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은 물론, 亞細亞地域에서의 主導的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IFLA에서는 이러한 韓國의 역할에 크게 期待하게 되었고, IFLA사업추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3. 第46次 IFLA總會

이번 第46次 總會는 지난 8月 18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는데, 本總會의 代表 파견 경위와 會議 내용을 중요한 접단 간추려 紹介함으로써 報告에 대신하고자 한다.

가) 韓國代表團의 構成

IFLA 總會에는 10餘年前부터 매년 다수의 代表團을 파견하여 왔다. 금년 第46次 總會에도 本總會 프로그램을 參考하여 필요한 人員의 代表 참석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IFLA總會 조직위원장으로 부터 公翰을 접수한 후 全國의 各 도서관장 및 도서관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參席希望者를 접수한바, 34名이 參席을 要請하여 왔다. 이들 中 館種別 및 主題別로 필요한 최소한의 人員數를 選定하여 代表團을 구성하였다. 代表團은 本人을 團長으로 하고 李鳳順 圖協副會長을 長으로 하여 모두 23名이었다.

同代表團은 IFLA에서의 韓國에 대한 期待와 이번 大會가 亞細亞地域에서 開催됨을 고려하여 보다 積極的인 活動과 아울러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對策의 必要性을 느꼈다. 本人은 團長의 立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事前에 강구키 위하여 出國前에 3次에 걸쳐 對策會議를 열고 會議參席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검토하고, 아울러 海外旅行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지는 機會를 마련하였다.

나) 出國 및 登錄

우리 代表團은 8月 16日(토요일) 오전 9시 15분 KAL편으로 서울을 出發하여 필리핀 마닐라에는 그곳 時間 오후 12시 20분에 도착하여 미리 예약된 Silahis호텔에 여정을 풀었다. 한편 李鳳順부회장

등 5명이 며칠전에 出國하였으며, 이날 합류하였다.

本人은 우리 代表團의 등록확인과 아울러 會議場所, 各國의 參席代表 상황 등을 미리 알아볼 필요성을 느껴 圖協 韓部長으로 하여금 大會組織委員會 事務局을 8月 17日 訪問토록 지시하였다.

韓部長은 本人의 지시대로 17日 오전 組織委員會 事務局을 방문하고 代表團 등록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 돌아왔다. 各國 代表團의 參席現況은 17日 현재 등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北韓代表는 參席치 않았으며, 共產國 代表中 특히 中共에서 3명이 IFLA總會史上 처음으로 參席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소련에서 5명을 비롯하여 체코 등 다수의 공산국에서도 이번 總會에 參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7日에는 조직위원회의 각종 執行委員會가 계속 개최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朴 啓弘(KIST도서관장)씨가 同執行委員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협조해 주고 있었다.

다) 會議場

8月 18日 오전 8시 우리 代表團은 大會場所인 PICC (Philippin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 도착하여 會議場 주변을 미리 익혔다.

이 PICC는 필리핀 정부에서 특별히 建立한 國際會議場으로서 各種 會議施設이 훌륭하였으며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국제적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국제회의장은 4층건물로서 本會議場이 1,000餘名 정도 수용할 수 있고, 同時通譯施設 등 국제회의 進行에 필요한 각종시설이 갖추어졌고, 1천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이 부속건물로서 설비되어 있었다.

라) 各國의 參席代表數

18日 받은 프로그램 책자에는 미리 각국으로부터 예약접수한 參席豫定者 名單을 수록하였는데, 이名單에는 61個國 996명이 參席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로 參席한 인원수는 61個國 1,027명이었음이 회의기간 중 발행된 뉴스레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중 필리핀 代表가 446명이었고, 美國代表가 95名, 日本代表가 51명이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中共代表 3名, 소련代表 5名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開會式

개회식은 18日 午前 10時 45分부터 시작토록 되어 있었으나 예정시간보다 30分 정도 늦게 시작되었다. 개회식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이멜다 대통령 영부인의 入場이 있는 후 바로 시작되었다. 大統領과 그 부인이 入場할 때는 入口에서부터 各國 代表들과 악수를 하는 등 화기롭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開會式 順序는 R. Vallejo 총회조직위원장의 開會人事가 있는 후, E. Granheim IFLA會長の 개회사, K. Roberts 유네스코代表의 祝辭에 이어서, 마르코스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 女史의 환영사와 마르코스大統領의 開會基調演說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회순서가 끝난 후 今年 이후 IFLA總會 開催地의 紹介와 더불어 開催地國家代表들의 간단한 人事가 있었다. 이 紹介에 의하면 1981年度에는 東獨 리히프지히市에서, 1982年度에는 캐나다 토론토市에서, 1983年度에는 西獨에서, 1984年度에는 美國에서, 1985年度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1986年度에는 日本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한다.

바) 主題 및 發表者

이번 總會의 주제는 「圖書館 및 情報시스템의 開發 : 국제적 이해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범세계적 정보교환」(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Global Information Exchange for Greate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었다.

이러한 大主題를 中心으로 97個 專門主題를 가지고 125名の 發表者들이 각각 발표를 하였다. 發表가 끝난 후 討論을 가졌으며,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決議文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主題討論이 各分科委員會 會議室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代表들은 館種別 및 主題別로 나누어 자기 필요한 分科에 參席하여 發表를 듣고 討論에도 참여하는 한편 各種 資料도 모두 蒐集하였다. 그리고 한 主題發表가 끝나면 우리 代表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각자 참석하였던 分科에서 토론한 內容을 報告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다음 會議에 대한 對策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代表들은 필요한 主題는 빠짐 없이 그 發表를 듣고 적극 참여하였다. 各 分科主題 발표는 비교적 매우 진지하였고 알찬 내용들이었다. 本人은 주로 國會圖書館에 關聯된 分科의 地圖保存 圖書館 등 우리 나라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特殊分野의 主題發表에 관심을 가지고 參席하였다.

특히 8月 20日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亞細亞人들만이 모이는 會議에 우리 代表들의 대부분이 參席하였는데, 이 會議에서 論議된 事項을 보면 亞細亞地域에서의 共同的 문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되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에 필요한 資金을 確保할 수 있는 方案의 하나로 資金支援이 가능한 財團이나 團體를 調査하기로 하였다.

各 主題發表에 參席하고 느낀 점은 世界的 圖書館 事業이 놀랍게도 하루가 다르게 發展한다는 점이였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하겠으며, 努力을 배가해야 하겠다는 점이 절실했다. 아울러 한가지 유감스럽게 생각된 점은, 우리 代表가 主題發表를 말지 못한 점이였다. 차후부터는 이러한 國際會議에 보다 能動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사) 各國 代表와의 對話

韓國에 대하여서는 1976年 IFLA서울大會를 계기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代表들은 各國 代表들과 비교적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本人도 조직위원회 紐우스레터 弘報담당자와의 인터뷰 등 많은 各國代表들과 對話を 가졌는데, 특히 소련 레닌도서관(Lenin State Library)에서 온 N. Kartashov와는 國會圖書館에서 추진하고 있는 國際交換業務를 確認해 보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言及을 회피하는 바람에 詳細한 얘기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8月 18日 저녁 조직위원장 초대만찬회에서는 各國 代表들이 알파벳順으로 紹介되었는데 우리 代表團이 紹介될 때는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으며, 우리 代表들은 만찬회석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各國 代表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만찬회에는 우리 女子代表들이 韓服차림으로 참석하여 큰 人氣를 끌기도 하였다.

그리고 會議期間中 會議場 로비에서 많은 代表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 IFLA총회에 처음으로 參席한 中共代表의 한 사람인 ZHI-GANG DING와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히 資料交換에 대한 意見を 교환하였다. 이들은 相互資料交換을 적극 환영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 見學 및 觀光

이번 會議期間中 조직위원회의 배려로 8月 21日 하루를 見學日로 정하였다. 우리 代表들도 이에 參加하였는데 마닐라市 主要地와 필리핀 國立圖書館, 마닐라大學圖書館 등을 見學하였다. 그리고 회의기간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마닐라에서 떨어져 있는 소위 第2次大戰의 激戰地를 돌아 보았다.

4. 맺 는 말

이번 국제회의에 우리 代表團을 파견함으로써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회의에 참석한 우리 代表들은 會議期間 중 필요한 各分科會議에 빠짐없이 열심히 參加하였음은 물론 各國 代表들과 많은 意見を 교환하는 등 韓國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國際會議를 통하여 보다 절실히 느낀 점은 놀랍게도 새롭게 發展하는 世界的 圖書館現場을 피부로 느꼈으며, 이러한 世界的 潮流에 步調를 맞추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國際會議 등에 더 많은 圖書館人들이 參席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여 見聞을 넓히도록 하고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이번 IFLA總會에서 많은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協調하고 無事히 돌아와 준 參席代表 여러분들에게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